

북스

Books

고은 연작시집 '만인보'
21~23편 3권 동시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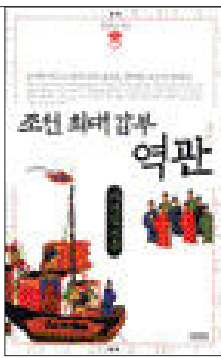
고은 (73) 시인의 연작시집 '만인보(萬人譜)' 21~23편까지 3권이 동시에 출간됐다.

'만인의 족보'가 기록되고 있는 '만인보'가 지난 1986년 세상에 첫 선을 보인 지 20년이 됐다. 이번에 새로 출간된 시집들에는 4·19 혁명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의 순간이 포착돼 있다. 등장 인물만 390여명에 416편의 시가 담겨 있다.

4·19의 도화선이 된 김주열, 시위 속 총탄에 쓰러진 구두탁이, 영부인 프란체스카 여사, 절도범, 하루 16시간 노동에 시달리던 미성공, 신문팔이 등 격변기를 거친 이들은 시인의 진혼곡을 타고 다시 살아난다. "진정한 레퀴엠(진혼곡)이란 넋을 잠재우는 것이 아니라 넋의 침묵을 깨우는 것"이기 때문이다. (장미·각권 8천원)

조선 최대갑부 역관 이덕일 죽음

명나라 흥가에서 기녀를 구출해 준 이야기의 실제 주인공은 드라마 '상도(商道)'의 임삼옥이 아니라 조선 역관 홍순언이었다. 훗날 이 기녀는 명나라 재상 석성의 부인이 됐다. 이 인연으로 홍순언은 명나라의 '대명회전'에 잘못 기록됐던 태조 이성계의 세계(世系)를 바로 잡을 수 있었다. 임란 때 명나라 원군을 이끌어오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한·일·청 중개무역에 담당했던 역관은 당대의 '큰손'이었다. 연암 박지원의 허생전(許生傳)에서 남루한 허생에게 선향 1만냥의 거금을 빌려준 변(下)씨라는 인물도 실존했다. 역관 출신으로 도성 제일의 부자가 된 변승업(下承業)의 할아버지가 주인공이다.

사대부들이 멸시하던 훈민정음을 어린이들의 필수 지식으로 만들려 했던 인물은 조선 중종 때 역관 최세진이였다. 그가 지은 훈몽자회(訓蒙字會)는 생활한자 3천300자에 한글로 음과 훈을 단 책이었다. 뛰어난 외교관, 중개 무역상으로 활동했던 역관은 요즘 표현을 빌자면 투잡, 쓰리잡을 망라한 멀티잡(Multi job)의 소유자였다.

'아나키스트 이회영과 젊은 그들', '정약용과 그의 형제들' 등을 통해 역사 속에 묻힌 인물을 복원해온 이덕일씨가 '조선 최대 갑부 역관'을 펴냈다. 저자는 조각조각 흩어져 있는 사료들을 발굴해 재구성함으로써 역사 속으로 사라져간 역관 집단의 다양한 역할과 의의를 입체적으로 복원했다.

그는 이 책에서 역관들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들려준다. 장희빈은 속종 당시 거부였던 역관 장현의 종질녀였다. 그녀가 서인정권을 무너뜨리고 남인정권을 세우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녀의 배경이었던 인종 잠제 거문, 즉 역관 명가의 뒷받침 때문이었다.

역관들은 개화사상의 첨단에 있었다. 중국인 주본

천의 얼굴을 가진 조선의 막후 실세



통신사로 외국을 다녀왔던 역관들의 이동 모습을 그린 '통신사 행렬도'. 아래는 조선시대 역관시합 합격자 명부를 수록한 역과방목(譯科榜目).

외교관·국제 무역상·개화사상가... 사라져간 역관의 역할·의의 복원

모 신부가 조선으로 넘어왔을 때 그에게 은신처를 제공한 인물도 역관 최인길이었다. 뛰어난 외국어 실력과 대외정보 수집능력으로 역관은 화약을 밀수입하거나, 직접 제조해 조선군의 전투력향상에 기여하기도 했다. (김영사·9천900원)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세기의 브랜드 **Coca-Cola** 마케팅의 신화

지난 한 세기 동안 '브랜드 가치 1위', '마케팅의 제왕' 등으로 군림하던 코카콜라의 명성에 금이 가고 있다. 지난 2004년 이후 시장 점유율, 기업 가치, 매출액 등 모든 면에서 경쟁업체인 펩시콜라에 밀리고 있는 것. 게다가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건강에 대한 관심과 환경·시민 단체의 공격은 코카콜라의 위기를 부채질하고 있다.

코카콜라의 진실 콘스턴스 헤이스 죽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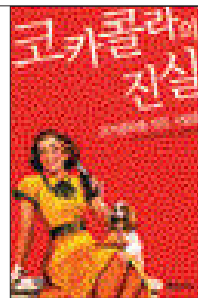
임을 책임지고 있는 코카콜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떤 전략과 방식으로 현재의 위치에 오르게 됐는지에 대한 분석에서 나온다. 물론 코카콜라가 펩시콜라의 선전을 저지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은 남는다.

저자는 단순한 청량음료에 불과하던 코카콜라가 문화·경제적 정점으로 떠오를 수 있었던 것이 마케팅의 힘이라고 진단한다. 대표적인 성공사례

는 산타클로스라 제2차 세계대전, 청량음료 판매량이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겨울철, 이들은 근엄한 모습의 산타클로스에 인정한 미소와 코카콜라를 상징하는 빨간 색 옷을 입히면서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만나게 된다. 대공황이던 1931년의 일이다.

또 제2차 세계대전에서는 미군들에게 5센트에 코카콜라를 마실 수 있도록 한 결과, 전쟁 동안 50억명의 코카콜라를 판매할 수 있었다. 미국으로 돌아온 군인들은 이후에도 코카콜라의 유흥을 떨치지 못했다. 코카콜라와 운영을 같이한 역대 CEO들의 성공스토리는 이들의 열정과 행운을 엿볼 수 있게 한다. (북@북스·1만7천원)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정우부동산
남평 수원리 1중주거 400평
봉황 덕곡리 2천평매도
나주 신평 매성리 1226평 투자
세지교신리 거주 묘명당 2천평
보전읍 4788평주거 4788평 매도
그라블트임아 21000평 매도
무인정계왕산 38000평
능가주택 남구 입촌 738평
전원 농장 1200평 급매
주거내대매도
장성 개민발 4270평 매도

한국공인중개사
장성지역
공장매도
장성군 삼계면 4차선집
대자·약3000평
건물1-철골조 2층 437평
건물2-철골조 248평
매매가 12억(철골가능)
* 장성군 황룡, 동화, 공장부지 매물 급구함.

대인부동산
교합전문
복합주택
아파트
방매매
신정동
신정동
연제동
교합
교합물건구함
매매(의정성)
원룸(3층) 급매

엑스포공인중개사
동구 동명동 조대림 콘도로점
남구 월산동 2층상가 주택매매
일번상업지역 매매
남구 월산동 외곽도로점 주주거지역
남구 월산동 외곽도로점 사거리 콘도로점
서구 용암동 2중 주주거 매매
서구 용암동 신축원룸 매매
서구 용암동 외곽도로점 2중주거매매
서구 용암동 외곽도로점 상업지역
서구 용암동 2중상가 A3층 47평
광산구 소촌동 급매미리 A11층 3중
오치동 상가주택 급매매
나주시 남평읍 평산리 임야매매
나주시 시외리 임야매매
나주시 남평읍 우산리 공장매매

아름다운부동산
상가건물
모텔매매
병원부지
공장부지
전원주택용지
주말농장용지
묘지

첨단월계공인중개사
첨단중심 상업지역
자연·생산농지 매매
첨단 원룸 건물급매
첨단 아파트 인공 투자지
상가건물
첨단 인공 자연·생산농지
경관좋은 종교용 최적지
자연 준공업지역 급매

국민공인중개사
건물
매매교환
주유소 전문중개
병원부지 전문중개
향교 급매

부동산 114 광산공인
신항지구 토지매매(다량보유)
수원지구 토지매매(다량보유)
수익성 상가건물 매매
공정, 밀물, 주유소 부지 등구함